

2010 EAI 사회과학 대강좌

역사 속의 젊은 גד들



환재 박규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하영선
01

E - Mail : ysha@snu.ac.kr



I. 만남

1. 18세기와 19세기

2. 21세기와 19세기

문명사의 전환기

✓ 21세기: 근대/복합/탈근대

✓ 19세기: 전통/근대



I. 만남

2. 박규수의 사랑방

2. 박규수의 사랑방

- ✓ 1931년 준원의 박영호 인터뷰 “내 신사상은 박규수 집 사랑에서 나왔소…….”
- ✓ 1870년부터 박규수(1807-1877)는 오경석(1831-1879), 유대치(1831-1884?) 의 도움을 받아 김옥균(1851~1894), 박영교(1849~1884), 박영호(1861-1939), 홍영식(1855~1884), 서광범(1859~1897), 유길준(1856~1914)과 김윤식(1835-1922), 김홍집(1842~1896), 어윤중(1848~1896) 등에게 연암집과 해국도지(海國圖志) 등을 가르침.

I. 만남

3. 위정척사론
○ 7 L

3. 위정척사론

- ✓ 화서 이항로(1792-1868) 양화(洋禍)에서 청은 이적 서양 서은 금수(禽獸)
- ✓ 중암 김평묵(1819-1891) 어양론(禦洋論)에서 인도와 금수지도로 구분.



II. 삶

1. 유년시절과 양년

1. 유년시절과 은둔기(1807년~1847년)

년도	연호	나이	내용
1807년	순조 7년	1세	본관 반남(潘南). 아명은 규학(珪鶴), 자는 환경(桓卿), 예동(禮東), 호는 환재(桓齋), 환재(璣齋). 장암(莊菴). 균심(均心) 박지원의 차남 박종채(宗采)와 전주 유씨 사이의 3남중 장남으로 한양 가회방에서 태어남.
1813년	순조 13년	7세	가세가 빈한하여 어려서는 주로 아버지에게 수학하였고, 외종조 유화(柳誅)의 서루에서 날마다 책을 뒤적이며 놀았음
1820년	순조 20년	14세	척숙(戚叔)인 이정리(李正履), 이정관(李正觀) 형제에게 문학수업을 받음.
1821년	순조 21년	15세	종영(趙鍾永) 등과 망년지교(忘年之交)할 만큼 학문적으로 성장
1825년	순조 25년	19세	살고 있던 계산초당으로 효명세자(孝明世子)가 왕림하여 학업을 장려하고 돌아감

1. 유년시절과 은둔기(1807년~1847년)

1826년	순조 26년	20세	홍대용의 손자 홍양후(洪良厚)와 교분을 맺고 연행가는 그에게 증언(贈言)을 지어줌
1827년	순조 27년	21세	<상고도회문의례(尙古圖會文儀例)를 완성
1828년	순조 28년	22세	<의례>부터 시작하여 삼례(三禮)를 연구
1829년	순조 29년	23세	효명세자의 명으로 <연암집>과 <상고도회문의례>를 진상
1830년	순조 30년	24세	세자의 급서(急逝)와 모친(1834)과 부친(1835)의 연이은 사별로 인한 상심 등으로 18년간 은둔하며 학문에만 전념, 박지원의 《연암집 燕巖集》 실학 학풍에 눈을 떴고 윤종의(尹宗儀)·남병철(南秉哲)·김영작(金永爵) 등 당대 일류학자와의 학문적 교류를 통하여 실학적 학문경향을 한층 심화시켰다.

II. 삶

2. **출사와 관직생활**
L 702

2. 출사와 관직생활(1848년~1873년)

년도	연호	나이	내용
1848년	헌종 14년	42세	<關衛新編>에 대해 논한 <벽위신편평어(關衛新編評語)>를 지음.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으로 처음 관직에 나아감. 병조정랑으로 옮겼다가 다시 용강현령에 부임.
1850년	철종 1년	44세	부안현감, 이듬해 사헌부장령에 제수됨
1854년	철종 5년	48세	1854년 동부승지가 되고, 경상좌도 암행어사로서 민정을 시찰
1858년	철종 9년	52세	다시 곡산부사로서 외직에 보임
1861년	철종 12년	55세	6개월간 연행사의 부사(副使)로 중국에 다녀옴. 1856년 애로호 사건(Arrow號事件)으로 영국·프랑스 군이 북경, 천진을 점령. 청나라 함풍제(咸豐帝)가 러허(熱河)로 피난함. 문안사절로 가서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심병성(沈秉成) 등 80여명의 중국문인들과의 교류로 견문을 넓히고 귀국하여 곧 성균관대사성이 됨

2. 출사와 관직생활(1848년~1873년)

1862년	철종 13년	56세	2월 진주민란의 사태수습을 위한 안핵사(按覈)에 임명되어 민란의 진상을 조사, 보고함. 국내현실을 직시할 기회였음 . 안핵사 임무를 수행하고 10월 이조참의가 됨.
1864년	고종 1년	58세	고종이 즉위하자 특별 가자(加資)되어 도승지에 임명, 고종으로 익종(翼宗)을 승계시킨 조대비(趙大妃:익종의 비)가 익종과 가까웠던 박규수를 우대. 이어 사헌부대사헌 · 홍문관제학 · 이조참판을 차례로 역임함.
1865년	고종 2년	59세	한성부판윤에 제수됨. 곧이어 지경연사(知經筵事)겸 공조판서에 전임,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경복궁 중건에 착수하자 영건도감(營建都監)의 제조(提調)를 겸함. 예조판서 · 대사간을 거쳐 8월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 제수됨

2. 출사와 관직생활(1848년~1873년)

1868년	고종 5년	62세	중국의 자문에 대해 회답하는 <請開諭美國使臣 勿致疑怪 咨>를 맡아 짓다. 미국군함 세난도어(Shenandoah)호가 와서 조희를 전달.
1869년	고종 6년	63세	4월 한성판윤에 임명되었고, 이어 형조판서에 제수됨
1872년	고종 9년	66세	대제학에 재임중 진하사(進賀使)의 정사(正使)로서 서장관 강문형(姜文馨), 수역(首譯) 오경석(吳慶錫)을 대동, 두번째 연행. 제 2차 중국사행에서 서양의 충격에 대응하는 청나라 양무운동(洋務運動)을 보고 음. 특히 1871년 청나라의 사죄사로서 프랑스 여행에서 돌아온 송후(崇厚)의 형 송실(崇實)을 만나 서양제국의 사정을 보다 자세하게 들음

2. 출사와 관직생활(1848년~1873년)

1873년	고종 10년	67세	<p>5월 형조판서. 우의정에 임명됨. 흥선대원군에게 수호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했으나 뜻대로 실현되지 못함.</p> <p>12월 고종의 친정(親政) 선포, 흥선대원군 대신 민씨일족이 국정의 실권을 장악함. 대외관계의 초점은 일본의 왕정복고를 통고해 온 서계문제(書契問題)였음. 박규수는 서계의 문구에 구애되지 말고, 국가제도를 변경한 일본이 옛날같이 통호(通好)를 원하는 한 대국적 시각에서 서계를 받아들일 것을 주장.</p>
-------	--------	-----	---



II. 삶

3. 박규수의 사랑방

3. 박규수의 사랑방(1874년~1877년)

년도	연호	나이	내용
1874년	고종 11년	68세	9월에 사직하고 1875년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어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 한거생활에 들어감. 그의 사랑방에서 젊은 양반자제들에게 《연암집》을 강의하고 연행사나 역관들이 전하는 새로운 사상을 알려 개화운동의 선구적 인물들을 키움. 계속 문호개방을 위하여 진력

3. 박규수의 사랑방(1874년~1877년)

1875년	고종 12년	69세	<p>5월 흥선 대원군에게 “만약 저들이 포성을 한번 발(發)하기에 이르면 그 이후 비록 서계를 받고자 하여도 이미 때가 늦어 나라를 옥되게 할 것이다.” 고 말함. 즉, 왜양일편(倭洋一片)인 상황에서 일본과의 수호를 거부하는 것은 조선의 약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력행사의 구실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p> <p>6월 서계문제를 논의한 시원임대신 어전회의에서 국가 제도를 변경한 일본이 주장하는 인호(隣好)를 거부하면 반드시 한을 품고 불화를 일으킬 것이므로 심사숙고를 주장</p> <p>9월 25일 일본이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일으켜 수교를 강요하자 오경석 등과 함께 정부대신들을 설득.</p>
1876년	고종 13년	70세	<p>1월 고희(古稀)를 넘겨 한직(閑職)인 수원유수(水原留守)로 있었음</p> <p>2월 강화도 담판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무력적 위협속에 진행되어.</p> <p>26일 12개 조항의 병자수호조규(강화도조약 丙子修好條規) 체결.</p>

3. 박규수의 사랑방(1874년~1877년)

1877년	고종 14년	71세	2월 9일 재동 자택에서 별세.
1913년			김윤식 찬<환재선생집>(보성사) 간행

* 환재의 교유와 저서

- ◎ 정약용 · 서유구 · 김매순(金邁淳) · 조종영 · 홍석주(洪奭周) · 윤정현(尹定鉉)을 선배로서 사숙하였고, 문우로서 남병철 · 김영작 · 김상현(金尙鉉) · 신응조(申應朝) · 윤종의 · 신석우(申錫愚) 등과 주로 교유하였다.
- ◎ 저서로 《환재집 瓊齋集》 · 《환재수계 瓊齋繡啓》, 편저로는 《거가잡복고 居家雜服攷》가 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III. 압

1. 與洪一能(良厚)書와 증언(贈言)

1. 與洪一能(良厚)書(1826)와 증언(贈言)

- ✓ 골동품, 서화, 소설책 대신 천하대세와 학술제도 변화의 깨달음을 기대
- ✓ 증언에서 11개조의 조언: 이용후생을 위해 청나라 문물에 관해 널리 배우고 문기에 힘쓰되 화이의 구분을 엄격히 해야하며, 만주족과 한족을 가리지 않고 교제하는 풍조를 비판(제1조)

III. 압

2. 상고도회문의례(尙古圖會文義例)

(1827)의 쫑명사상

III. 압

3. 윤득기 출기에 쓴 시 세모기인(歲暮寄人)에서
冷眼看時務 虛心讀古書

III. 압

4. 거가잡복고(居家雜服攷) (1832/서문1841)

4. 개가잡복고(居家雜服攷)(1832/서문1841)

✓ 외복(外服)/내복(內服)/유복(幼服)

✓ 실용과 존화익식

III. 압

5. 벽위신편평어(關衛新編評語) (1848)와
해국도지(海國圖志) (1843/1847/1852)

5. 벽위신편평어(關衛新編評語)(1848)와 해국도지(海國圖志)(1843/1847/1852)

- ✓ 웨이 위안(魏源)의 황조경세문편(皇祖經世文編)(1827) 1840년 이정리에 의해 국내소개되어 고증학 비판과 해방론(海防策)에 관심들을 보임
- ✓ 윤종의 벽위신편(1848 “사교(邪教)를 없애는 방법은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이 상책이고 외구(外寇)를 방어하는 요령은 적정(敵情)을 캐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誅邪之法 革心爲上 禦寇之要 鉤情最急).”
- ✓ 박규수의 평어: 척사론과 해방론은 웨이 위안의 영향 받음

5. 벽위신편평어(關衛新編評語)(1848)와 해국도지(海國圖志)(1843/1847/1852)

웨이 위안 해국도지 해방론의 영향

彼皆以中士人譚西洋 此則西洋人譚西洋
爲以夷攻夷而作 爲以夷款夷而作 爲師夷長技以制夷而作

- ✓ 「의수(議守)」, 「의전(議戰)」, 「의관(議款)」 의수는 외양보다 내수를 지켜서 오랑캐를 막는 방법, 의전은 오랑캐의 적으로 오랑캐를 공격하는 법과 전함, 화기, 양병·연병법 같은 오랑캐의 장기를 배워 오랑캐를 제압하는 법을 설명. 의관은 각국에 호시(互市)를 허용하고 아편에 높은 세를 적용한 무역을 하는 친화적 수단으로 오랑캐를 대하는 법을 설명. 웨이 위안의 해방론은 19세기 중반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해방론의 전형적 표준이 됐다.



III. 압

6. 환재집 외교문서(1866-1871)

b. 환재집 외교문서(1866-1871)

- ✓ 가. 김윤식은 안설에서 병인년부터 신미년까지 대미문제에 관해 박규수가 작성한 외교문서들이 문호를 닫고 화호를 물리치는 내용인 것은 반드시 선생의 뜻이 아니고 척화의 대세와 외교문서 형식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주장
- ✓ 나. 박규수는 구미의 근대국제질서를 새로운 문명표준으로 받아 들여서 구미 열강과의 새로운 국제관계를 주장한 것은 아님
· 해방론의 시각에서 구미 열강과 힘의 형편에 따라서 지키고, 싸우고, 또는 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문명표준이 구미 열강을 압도할 것을 강조
- ✓ 다. 박규수는 이런 구상을 빠르게 심화되는 국제위기와 국내의 국내의 척사분위기 속에서 조심스럽게 현실화시켜 보고자 노력

A world map is shown in a light, semi-transparent style. A bright, glowing green arc curves across the map from the bottom left towards the top right. The background has a subtle, repeating geometric pattern.

III. 압

1. 세계문제

7. 서계문제(1873-1876)

- ✓ 조선국왕에 대한 일본의 ‘황(皇)’ / ‘칙(勅)’ , 조선에 대해 ‘대일본(大日本)’ 등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수리를 거부. , 직함을 더 쓴 것은 국가 정령(政令)이 새로워져서 관작(官爵)이 바뀐 것이므로 서계의 문구에 구애되지 말고, 국가 제도를 변경한 일본이 전처럼 통호(通好)를 원하는 한 대국적 시각에서 서계를 받아들일 것을 대원군에게 역설.

IV. 남김



환재가 남긴 것

✓ 가. 감신정변

✓ 나. 갑오개혁

